

사회

인화학교 특수교육기관 취소될 듯

광주시교육청, 행정·법률적 검토... 재학생 22명 교육대책 고민

경찰, 인화원 학생간 추가 성폭행 의혹 풀어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폐교여론이 들끓고 있는 인화학교에 대한 청각장에 특수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인화학교와 동일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시설에서 학생 간 성폭행 의혹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인화학교에 대한 청각장에 특수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토대로 행정·법률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을 교육할 국·공립 교육시설 등 대안교

육 기관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 법인 등이 운영중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교생 22명에 대한 교육대책이다. 재학생들을 또 다른 특수학교에 전학시켜 위탁교육을 하거나, 일반 학교로 옮겨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과과정에 맞춰 교육을 옮기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고민이다. 이들을 지도할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난제다. 현재 보호자가 없어 인화학교 내

기숙사인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재학생 7명은 학교를 옮기더라도 안정적인 거처가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공립 특수학교(선우학교)가 오는 2013년 3월 개교하면 이곳에 청각장애 학생을 수용, 자연스럽게 인화학교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선우학교는 애초 정신장애 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 계획됐다

가 인화학교 사건 이후 청각장애 분야가 추가됐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일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해 5~6월 사이 인화학교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10대 남학생 1명이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 2명을 기숙사와 교실 등에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7월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유관기관과 함께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의혹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나섰다. 합동조사위는 인화원의 반발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4월에야 감사 형태를 빌려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문제의 남학생은 올 초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과 수감명령을 받았으나 추가 성폭행 피해 사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 학교 정문이 바리케이드가 쳐진 채 굳게 닫혀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피해자 고소 취소로 집유 선고” “무릎꿇고 사죄하라 설득했다”

‘도가니’ 항소심 재판장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당시의 항소심 재판장은 “죄질이 매우 나쁜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부에 근무하는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일반적인 성폭행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데, 더구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법인을 나서서 도와주려는 판사가 있겠느냐”며 “그럼에도 판결은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인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에 고소의 효력이 사라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됐다면 공소기간 판결을 선고해야 했기에 실사 2심에서 취소됐더라도 양형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거두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4월에야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 부장은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경찰, 법원, 변호사가 협잡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거나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가니’ 피고인 변호사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당시 항소심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변호했던 문정현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행 범행이) 사실이라면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28일 “당시 수사기록 상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있어 ‘사실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설득도 하고, 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 등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 내용에 교장의 가족이 학교에 온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나 목격자 진술 가운데 추구를 하다 우리 창가에 와서 범행을 봤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유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소설은 피해자 쪽 얘기만 듣고 쓴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었다”고 일축한 뒤 “항소심 재판장이 이한주 부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불법 게임장도 스마트?

목포경찰, 태블릿 PC 이용 운영자 적발

‘불법 게임장도 스마트해졌다?’ 목포경찰은 크기가 작아 이동·휴대가 편리한 태블릿 PC를 이용,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5)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한 건물에 태블릿 PC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게임 포인트를 입력하고 환전을 요구할 때는 3%의 수수료를 받

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반 PC에 비해 설치가 훨씬 간편한 태블릿 PC의 장점에 착안해 이같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케이드 게임류 단속이 강화되자 크기가 작아 이동·휴대성이 편리한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를 이용한 신변종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공금 4억원 횡령 혐의 문태학원 이사장 수사

검, 학교공사 금품 수수의혹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학원 재단의 공금 횡령 혐의로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문모(57)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교과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문 이사장의 재단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문태학원 행정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문태학원 법인용 수익자산인 모 마트 임대료를 배우자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

나 재단 법인용 수익재산 임대료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 재단 입출금 내용이 포함된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혐의가 입증되면 문 이사장을 소환 조사를 계획한다”면서 “정지권 인사와의 관련성 등 정황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교 공사와 관련 리베이트 거래 정황과 교직원 채용에 따른 금품 수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인감도장 위조 허위서류 작성 중고차 대출금 50억 ‘꿀꺽’

순천경찰, 일당 검거

남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허위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50여억원의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순천경찰은 28일 남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이를 제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50여억원의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차량 판매점 정모(32)씨 등 2명, 서류위조책 박모(37)씨 등 3명(“유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소설은 피해자 쪽 얘기만 듣고 쓴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었다”고 일축한 뒤 “항소심 재판장이 이한주 부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광양시청 옥상서 장애인 1인 시위

28일 새벽 4시 30분께부터 광양시 광양시청 4층 옥상에서 장애인 성모(45)씨가 시위를 벌이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10분께 자진해서 내려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광양시청 옥상서 장애인 1인 시위

시위를 벌이자 1층에 고가 사다리차와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성씨는 모 건설업체가 현재 공사중인 세종~진상간 도로공사 구간에 참여한 자신의 누나 소유의 헛개나무 지장물 보살가가 너무 낮아 이에 항의하기위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나원침 (8405) 김중두

친구 부모 살해 용의자 3일만에 경찰에 자수

장성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광주일보 9월 26일 6면)의 용의자가 발생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장성경찰서는 28일 친구의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강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가족 등의 권유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에 장성군 장성읍 차모(82)씨 집에서 차씨와 아내 김모(72)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비슷한 시각 서울에 사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사실을 털어냈으며 강씨의 형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친구인 차씨 부부의 아들이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경찰관치고 달아난 무면허 10대들

이들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 국내의 고급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1인당 2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상나팔

○교통 정리중 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광주일보 9월28일 6면)와 동승자는 철없는 10대들로 판명.

○광주서부경찰은 28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광주 모 고교 3년 김모(18)군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조사 결과 친구와 선우배사이인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정리중이던 김경사와 맞닥뜨리자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김경사를 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일명 ‘대포차’로 약 2주 전 인터넷에서 140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 D-day 100일 출제유형을 잡아야 합격이 가까워진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10월 4일

상위권 대학편입 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 (대학별 출제경향 완전정복)

자연계열 편입합격 열쇠, 지방유일 실강의

편입수학 - 공학수학 이론/문풀

2013 편입영어 첫걸음

편입영어 (왕초보를 위한 문법/ 어휘이론)